

코로나 확산에 특별해외여행주의보 7월15일까지 재연장

백신 접종률·트래블 버블 등 고려 부분 해제 검토
광주 진정세...순천 고교생 등 전남 3명 신규 확진

정부가 15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7월 15일까지 다시 연장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계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하며,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과 3단계(철수 권고) 이하에 준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 선언과 코로나19 확산세, 다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 금지 또는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향후 코로나19 동향, 국내 백신 접종률, 외국의 백신 접종률, 백신접종 증명서 상호인정·여행안전 권역(트래블 버블) 협의 진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또 연장할지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7월 15일 이전이라도 국내외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백신접종률 등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가 부분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된 일부 국가로 이르면 7월부터 단체여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이와 맞물려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이 조정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금으로서는 해외여행을 연기 또는 취소해달라고 권고하는 단계이지만 7월 이후에는 국내외 방역, 백신접종률 등의 상황을 봐가면서 특별여행주의보의 부분 해제를 검토해 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지난해 3월 23일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 발령

한 이후 계속 연장하고 있다.
한편 전국에서는 1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374명이 늘었다. 누적 확진자는 14만8647명이 됐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지역발생이 347명, 해외유입이 27명이다.
연이를 300명대 확진자는 ‘4차 유행’ 시작 전인 지난 3월 15~16일(379명·363명) 이후 3개월 만이다. 374명 자체는 3월 23일(346명) 이후 84일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광주에서는 이날 오후 2시 현재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전남에서는 지난 14일 3명, 15일 오후 2시 현재 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순천에서 지난 14일 확진된 40대 영어학원 강사(전남 1555번)에게서 수업을 들던 학생(고교생) 2명(전남 1557, 1558번)이 15일 잇따라 확진되면서 추가 확진자 발생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연합뉴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1~2학년) 교사 및 돌봄인력 등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15일 광주 북구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대상자에게 접종을 하고 있다.

사적모임 인원, 수도권 6명·비수도권 8인 허용

다음달 5일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 앞서 3주간 ‘이행기간’ 적용

정부가 이르면 내달 5일 시행을 목표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일단 개편안의 전면 시행에 앞서 중간단계로 3주간의 ‘이행기간’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일단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즉각적으로 ‘8명까지’로 확대되지 않고 일단 ‘6명까지’만 허용될 전망이다. 유흥시설의 경우 자정까지가 아닌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비수도권에서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완전히 없애기 전에 8인까지만 모일 수 있는 이행 기간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각계의 여론을 수렴 중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영업제한 등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율과 책임을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거리두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계는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규모에 따라 정해진다. 현재의 유행 규모가 내달까지 이어질 경우 비수도권은 1단계(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수도권은 2단계(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이 각각 적용된다.
1단계는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한이 없고, 행사·집회에는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2단계는 사적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고,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으며,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행사·집회 인원은 99인까지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새 거리두기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전까지는 3주간의 이행기간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적모임의 경우 현재 거리두기 시범사업 지역 등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4명까지만 허용되고 있다. 정부는 향후 1단계가 적용될 비수도권에서는 3주간 8명까지 모이게 한 후 인원제한을 없애고, 2단계가 적용될 수도권에서는 6명을 거쳐 8명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과 관련해서도 유흥시설의 경우 우선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하게 하고 이후 자정까지로 연장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전남 10년간 7만명 감소...지역과 관계 맺기 통해 지역 성장 모색

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

전남도는 15일 시·군 인구정책팀장과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를 영상으로 개최, 지역과 다양한 관계를 가진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한 인구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관계인구’는 2016년 일본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다. 관광, 체험, 동향 출신 등 지역과 다양한 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하는데, 일본의 경우 제2기 지방장생전략(2020~2024)의 하나로 ‘지방과 연계강화’라는 새로운 인구정책을 도입, 관계인구 창출과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민형정 광주전남연구원 인구정책지원연구센터장은 “저성장, 인구감소시대, 관계인

구를 통한 지역 성장 모색” 주제 발표를 통해 “지역 소멸이라는 화두를 우리보다 먼저 고민하고, 경험한 일본의 사례, 정책을 연구해 지방소멸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중앙부처, 기초지자체, 전문가 등이 힘을 합쳐 새로운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군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등 지방소멸 위기감 고조에 따른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 정책 발굴에 공감을 표하고, 고향시민카드 발급, 방학 가족캠프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시·군의 경우 관계인구에 대한 우리나라 학술 논문 자료 등이 부족하므로, 정책 검토 및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을 발굴·시행하자는 의견을 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정책전략관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며 “전남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해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방소멸 위기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는 시·군 인구·출산팀장과 대학 교수 등 전문가 33명으로 구성, 분기별로 토의 주제를 정해 우수 인구정책 공유, 토론회, 세미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한다.
전남도 인구는 지난 2011년 191만4000여 명에서 10년만인 2021년 4월 현재 184만4000여 명으로 7만 명이 감소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막걸리 빚기’ 무형문화재 됐다

문화재청, 보유자는 인정 안 해

삼국시대 이전부터 즐긴 것으로 추정되는 막걸리를 빚는 문화가 국가무형문화재가 됐다.

문화재청은 15일 ‘막걸리 빚기’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막걸리를 빚는 작업과 생업을 비롯해 의례, 전통 생활관습을 포괄한다.

일반적인 쌀 막걸리는 고두밥을 지어 식힌 후 누룩과 물을 넣고 발효시켜 체에 거르는 과정을 거친다. ‘막’은 ‘바로 지름’, ‘바로 그대’를 뜻하며, ‘걸리’는 ‘거르다’를 뜻하는 순수 말로 명칭 자체에 술을 만드는 방식과 특징을 담고 있다.

조선시대까지는 집집마다 빚는 가양주(家釀酒)가 있었다. 우리 조상들은 김치나 된장과 같이 막걸리처럼 만들어 특유의 맛을 유지했다. 근대 이후 국가 정책과 맞물려 양조장 막걸리가 일반화되고 재료도 변했지만 그 명맥이 이어졌다. 2000년대 이후에는 막걸리 열풍이 불면서 다양한 막걸리가 등장해 관심을 끌었다.

문헌에 따르면 막걸리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즐긴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지주’(旨酒) 등 막걸리로 추정할 수 있는

막걸리

내용들이 나온다. 또한 고려시대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과 같은 문집에도 막걸리로 추정되는 ‘백주’(白酒) 등의 용어가 확인된다. 조선시대 ‘춘향전’에서도 ‘목걸리’, ‘막걸리’ 등 한글로 표기된 막걸리가 등장한다.

그러나 막걸리 빚기가 한반도 전역에서 전승·향유하는 문화라는 점을 고려해 ‘아리랑’,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처럼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되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막걸리는 식품영양학, 민속학, 역사학 등 다양한 학술연구자료로서의 가능성이 높고 지식이 전승된다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분 부동산 삽니다

(주)오천. 010-3605-5000

단독섬

삽니다. 010-6837-4700

희생회사 주식회사 씨와이 M&A 공고

I. 개 요

- ① **매각대상**: 희생회사 주식회사 씨와이
- ② **매각방법**: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 등 외부자본 유치
- ③ **입찰방법**: 일반 공개경쟁입찰 방식
- ④ **회사영위업종**: 한의약물 제조업 등

II. 진행일정

- ① **인수의향서 및 비밀유지확인서 접수**
- 제출기간: **2021년 7월 29일(금) 15:00까지** (대한민국 표준시)
- 제출장소: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재무자문본부 희생회사 주식회사 씨와이 매각추진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서울국제금융센터 One IFC빌딩 8층)
- 제출서류: 인수의향서 및 인수의향서 제출안내서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 일체 (인수의향서 제출안내서 참조)
- 제출방법: 직접 제출
- 인수의향서 양식 등은 매각주간사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수령 가능함

- ② **예비심사**
- 기 간: **2021년 7월 7일(수) ~ 2021년 7월 9일(금) 9시 영업일**
- 예비심사 참가자격: 인수의향서 제출 후 심사를 통과하고 정보이용료를 납부한 자
- 입찰자격자 별 예비심사 기간 중에 배부예정인 기재된 조건을 구비하여 제출
- ③ **입찰서류(Binding Bid)의 제출**
- 제출기간: **2021년 7월 19일(월) 13:00~15:00까지** (대한민국 표준시)
- 제출장소: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재무자문본부 희생회사 주식회사 씨와이 매각추진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서울국제금융센터 One IFC빌딩 8층)
- 제출서류: 입찰안내서(예비심사 기간 중에 배부예정)에 기재된 조건을 구비하여 제출
- 제출방법: 직접 제출
- **입찰참가자는 인수의향서 및 비밀유지확인서를 제출하고 정보이용료 납부 후 예비심사에 참여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인수의향서의 제출자가 없을 경우, 입찰서류제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매각주간사가 입찰안내서를 통하여 입찰자격자에게 주주 개별 통지함
- ④ **기 타**
- 본 공고문은 희생회사 주식회사 씨와이(이하 “회사”)의 M&A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지 않음
- **본 입찰은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안내서를 참조하기 바람**
- 접수된 제안 서류는 취소, 철회, 회수,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회사 및 매각주간사의 사정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고(변경내용은 매각주간사가 사후 개별 통보), 이 경우 회사 및 매각주간사는 아무런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상기 일정 및 내용 중 회생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가 내려져야 진행될 수 있음
- 인수의향서 접수기간 이후 추가접수 여부의 판단은 전적으로 회사 및 매각주간사의 고유 권한임
- 인수의향서 및 입찰서류의 심사, 새로운 인수자 및 차순위 인수예정자의 선정 등은 회사 및 매각주간사의 고유 권한으로, 모든 참가자는 그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매각주간사는 인수회명자에게 구 사유와의 연관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만일 이에 응하지 않는 인수회명자의 경우 인수자 또는 새로운 인수자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입찰서를 제출한 투자자(인수시연 및 Joint Venture 구성인 포함) 중 본 M&A를 전후하여 위반,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자는 새로운 인수자 선정 후보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찰서류 접수 결과 유효 시 별도의 매각공고 없이 회사 및 매각주간사 제창으로 재매각을 진행할 수 있음
- 기타 세부 일정 및 내용은 매각주간사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박성아 차장(TEL: 02-6099-4375, E-mail: spark9@deloitte.com)에게 문의바람

2021년 6월 16일

희생회사 주식회사 씨와이 M&A 매각주간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꼭! 받아야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합 병 공 고

(채권자의 및 주권 제출공고)

이정건설 주식회사(갑)와 이수건설 주식회사(을)에서는 2021년 06월 15일 개최한 각 주주 총회 결의로 갑은 을을 흡수 합병 하여 그 권리의무를 일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 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 부터 1개월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기 바람 또한 을회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본은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내에 관계회사에 주권을 제출하기 바람 와 이에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6일

(갑) **이정건설 주식회사**
전라남도 광양시 중앙로 148, 2층(중동)
대표이사 주용 조

(을) **이수건설 주식회사**
전라남도 순천시 이수로 25-1, 3층(양천동)
대표이사 김 지혜

69년을 바쳐온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JoongAng ShinYongJeongBong

• 지역안내 •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광동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신 571-7658 • 오 치 266-7601 • 흥 통 433-1503 • 우 신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흥 부 225-6001 • 중 명 222-9054 • 흥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흥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별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삼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문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흥 암 603-0311 • 화 청 369-1625
광산구	• 온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흥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신 944-0444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9년

光州日報

• 金 報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